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김 명 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입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그것은 어떤 내용과 방법의 교육을 하는가 하는데 따라 어떤 류형의 사람들을 어느 수준에서 키워내는가 하는것이 규정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교육내용과 방법도 그에 맞게 따라세울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학생들에게 숭고한 정신과 높은 창조성을 키워줄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혁명인재들로 키울수 있게 교육내용을 혁신하는것이다.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혁명인재들로 키울수 있게 교육내용을 혁신하자면 우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육과목의 내용을 혁명발전과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울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다.

정치사상교육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교육을 통하여 위인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혁명의 원리와 원칙, 방법을 똑바로 가르쳐주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을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시면서 구현하신 원리와 원칙, 방법대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도록 하며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필승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게 함으로써 적들과는 끝까지 싸워이기도록 하여야 한다.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동무들을 사랑하고 언어례절과 행동례절을 고상하게 하며 온 사회에 도덕기강을 세우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품모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와 품격이 결정되는것으로 하여 새 세대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혁명인재를 키우는 사업에서 기본으로 되며 언제나 중시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혁명인재들로 키울수 있게 교육내용을 혁신하자면 또한 과학기술교육내용을 혁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교육내용을 혁신하는것은 오늘의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제1생산력으로 되고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분, 초를 다투는 시대, 과학기술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이 좌우되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시대에 과학기술교육내용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중등일반교육과정안을 완성하고 대학들에서 인재양성목표에 따르는 교육내용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과학기술지식의 총량은 3년에 한번씩 배로 늘어나고있으며 과학기술이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의 기능이 확대되는데 따라 대학들의 학과구성과 전공구성이 확대되고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있다고 한다.

현대과학기술은 나날이 종합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매 학과들사이에 호상 교차, 침투, 의존하는 현상은 오늘 과학기술발전의 기본특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통적인 과목별방식으로 지식을 전달보급하던 지난날의 전문가양성, 전공인재양성방식은 현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고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는 반드시 다른 학과의 지식을 소유한 종합형의 인재로 되어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기 위한것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와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식갱신주기가 짧아지면서 생긴 《지식사태》로 하여 대학교육에서 지난 시기처럼 체계적인 지식전수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인류가 이룩해놓은 체계화된 기존지식이라고 해도 량이 너무 많아 주어진 학제내에 다 준다는것은 불가능하다. 더우기 기존지식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창조를 지향하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잘 맞지 않으므로 크게 의의가 없다.

결국 창조형의 인재를 키워내자면 교육이 과거에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하며 지난 시기의 전통적인 교육에서 중시하였던 체계화된 기존지식은 정보기술을 알고 정보설비를 리용하면 능히 자체로 소유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고등교육의 교육내용을 철저히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만이 훌륭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들에서 전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속에서 린접부문과 기타 다른 부문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합화된 인재들을 양성하고있다.

교육내용을 기초과목이나 전공과목이나 할것없이 현실이 요구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기초적인 내용과 전공관련내용을 밀착시키며 최신과학기술성과들로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내용구성에서 실천과 실험실습, 기능훈련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교육방법을 혁신하는것이다.

학생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교육방법을 혁신하자면 우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고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사고를 추동하여 그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하는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계발시키고 응용능력을 키워주는것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며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 중요한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논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알고있는데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다. 교원이라면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도록 능숙한 교수수법을 적용할줄 알아야 실지로 자질이 높다고 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학생들자신이 스스로 사물현상의 본질을 깨닫고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지식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교육방법을 혁신하자면 또한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공고히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강의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며 특히 학생들이 사물현상의 법칙과 원리들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쟁을 널리 조직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수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교육방법을 혁신하자면 또한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는것은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나아가서 인재들을 정확하게 선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오늘 세계적으로 각이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실력평가를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고있다. 필답과 구답, 실기시험과 컴퓨터시험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적용되어 인재선발에 리용되고있다.

배워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시험을 치는것은 낡은 시험방법이다. 기성의 지식을 암기만 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낼줄 모른다면 시대의 발전에 필요없게 된다.

혁명과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인재는 창조할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인재이다.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첨단수준의 과학기술지식을 창조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되도록 시험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배운 내용에 대한 인식 그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사색을 통한 창조, 탐구가 되도록 시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배운 내용을 창조적으로 적용할줄 아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우월한 능력과 부족한 능력을 판별하여 그 우점은 적극 살리고 부족점을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창조할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러한 능력을 시험하는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교원들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적으로 혁신하는것이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과학적성과들로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선하며 사회주의 교육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교육방법을 창조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야 할것이다.